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심으로

선혜연(宣惠娟)*

오정희(吳廷禧)**

논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중심으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스트레스의 관계를 기초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봄으로써,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과 학교상담의 실질적 활용방안 및 부모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초등학생 484명과 중학생 4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으며,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초등학생만이 유의한 부적 상관이 되었다. 둘째,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학생과 달리 초등학생의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부모의 역할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학업스트레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 제1저자,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건양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졸업

I. 서론

학업은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로서 생활의 중심이 되며, 학업과 관련된 문제는 청소년의 삶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학업에서의 부적응이나 어려움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황매향, 2008). 특히,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과도한 교육열과 입시경쟁은 학업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까지도 학업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12개(부모, 형제·자매, 외모, 신체건강 등) 스트레스 영역 중 전체 대상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학업문제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61.2%가 학업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급별 학업스트레스의 평균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스트레스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불안, 우울, 분노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 및 자살충동, 신체화 증상을 촉발하는 등(문경숙, 2008; 신현균, 2002; 윤명숙, 조혜정, 이현희, 2009)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및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공통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부적응적 행동의 완화를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연구로부터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서 스트레스를 이해하려는 관점(Lazarus & Folkman, 1984)인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모델은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적, 치료적 접근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유용한 접근 방법으로 지지되어 왔다(서희주, 2003).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모델에 입각하여 학업스트레스를 이해하고자 학업스트레스에서 고려되어야 할 환경적 요인과 개인내적 요인을 동시에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아동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정환경에서 부모의 역할을 고려해볼 수 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 자아개념, 태도, 가치관 및 행동수행 능력에까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자녀관계는 영향의 방향성을 막론하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어(선혜연, 2009), 학업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사회의 교육풍토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높은 기대를 갖게 되는데,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학습에 대한 관심, 요구, 기대 등의 교육적 관심이 자녀에게는 학업성취압력으로 지각될 수 있으며(김기정, 1984), 이러한 부모의 교육적 관심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부모의 성취압력은 부모의 실제행동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성취압력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노정림, 2006; 방숙진, 2011) 자녀의 관점에서 성취압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성취압력을 양육태도의 측면에

서 정의하기도 하고 양육행동의 측면에서 정의하기도 하면서 다소 혼란스러운 연구결과를 보여 준다. 양육태도적 측면에서 성취압력은 ‘자녀의 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관심(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으로 정의되며, 자녀의 성취동기를 높이는 역할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김의철, 박영신, 2004). 반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양육행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될 때 성취압력은 ‘학업성취를 목적으로 기대수준을 높게 책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활동을 기대하며 능력을 평가하거나 정의적 보상을 가함으로써 학습자가 지각한 압력(홍은자, 2001)’으로 정의된다. 이때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경우 나타나게 될 결과에 대한 걱정을 유발시키며, 자녀의 낮은 학업적 자아개념 형성에 기여하고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류연자, 1995; 박수자, 1996; 임중석, 2000; 홍은자, 200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실제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개입하는 행동적 측면을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는지 살펴보고 학업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부모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모델에서는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성취압력과 같은 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학업스트레스를 개인 내적으로 어떻게 조절하는지와 같은 내적인 요인에 대한 탐색을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인 내적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박영아, 2011; 황상미, 정현희, 2012).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이란 학습자가 학업적 상황에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김아영, 박인영, 2001)으로 정의되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Bandura & Schunk, 1981), 어려운 일이 발생하여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하면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Schunk, 1982).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사건을 평가하기보다 자신이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낮고, 심리적으로 건강하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박지현, 2006; 이상주, 2011; Pintrich & De Groot, 1990). 이처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며,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하여 성공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초등학교생들에게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중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빠른 속도로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Anderman & Midgley, 1997; Wigfield & Eccles, 2002). 국내 연구를 통해서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하면서 초등학교 시절보다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현상(김아영, 2002; 현주, 차정은, 김태은, 2006)이 보고된 바 있지만 변인간의 관련성을 기초로 초·중학생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련성에 기초하여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매개하는지 알아봄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개인 내적인 대처방안과 학교상담의 실질적 활용방안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있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스트레스는 관계가 있는가? 둘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있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있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서울, 대전, 충남권 소재의 초등학교 5학년 484명(49.5%)과 중학교 2학년 494명(50.5%)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검사문항의 이해가 가능한 대상을 선정하고,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앞두고거나 갓 진학하여 학업부담이 증가되는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1, 3학년을 제외한 결과로서 교급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학생 446명(45.6%)과 여학생 532명(54.4%)으로 이중, 남자 초등학생이 253명(25.9%), 남자 중학생이 193명(19.7%), 여자 초등학생이 231명(23.6%), 여자 중학생이 301명(30.8%)이다.

2. 연구도구

1)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강영철(2003)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김기정(1984)의 부모 양육태도 검사에 포함된 학업성취압력 관련 문항과 김경옥(1992)의 학업성취압력 검사를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총 문항 수는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형식은 ‘매우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4

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압력이 높은 것으로 본다. 강영철(2003)의 연구에 보고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한 김아영과 박인영(2001)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척도는 과제난이도 선호 10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자신감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8문항이며 원래 6점 Likert로 이루어져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반응용이성을 고려하여 유미영, 홍혜영(2010)의 연구에서 수정하여 사용된 5점 Likert를 사용하였다. 문항형식은 '매우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본다. 김아영과 박인영(2001)의 연구에 보고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자신감이 .76, 자기조절효능감이 .82, 과제난이도선호가 .85로 나타났으며 전체신뢰도 계수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자신감 .81, 자기조절 효능감 .88, 과제난이도선호 .88로 전체 신뢰도계수는 .90으로 나타났다.

3)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봉환(2006)이 개발한 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생활스트레스 척도'에서 학업관련 스트레스 요인을 발췌하여 강민정(2008)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스트레스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총 문항 수는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형식은 '매우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다고 본다. 강민정(2008)의 연구에 보고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2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PASW 18.0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별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s α 를 검토하였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을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단계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학업스트레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50, p<.01$)가 나타났으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47, p<.01$)가 나타났고,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23, p<.01$)가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r=.39, p<.01$)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r=-.23, p<.01$)이 나타났다.

<표 1> 학업스트레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계수

대상		학업스트레스	학업 성취압력	학업적 효능감
초등학생	1. 학업스트레스	-		
	2. 학업 성취압력	.50**	-	
	3. 학업적 효능감	-.47**	-.23**	-
중학생	1. 학업스트레스	-		
	2. 학업 성취압력	.39**	-	
	3. 학업적 효능감	-.23**	-.06	-

** $p<.01$

2.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학업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학업성취압력($t=10.73, p<.001$)과 학업적 자기효능감($t=-9.92, p<.001$) 모두 학업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스트레스 변량의 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학생의 경우에도 부모의 학업성취압력($t=9.03, p<.001$)과 학업적 자기효능감($t=-5.13, p<.001$) 모두 학업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변량의 1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중다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β	t	F
		B	표준오차			
초등학생	학업 성취압력	.47	.04	.41	10.73***	137.36***
	학업적 효능감	-.51	.05	-.38	-9.92***	
$R^2(\text{adj. } R^2) = .38(.38)$						
중학생	학업 성취압력	.34	.04	.38	9.03***	56.40***
	학업적 효능감	-.31	.06	-.21	-5.13***	
$R^2(\text{adj. } R^2) = .19(.19)$						

*** $p<.001$

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단계에 따라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①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고, ②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며, ③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전제조건이 성립되었지만 중학생의 경우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매개효과 검증에서 제외하였다.

Baron & Kenny(1986)의 3단계 검증단계에 따르면, 1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2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3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1단계보다 3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해야 매개변수의 부분매개효과(partial mediating)로 판단하며, 3단계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으면 매개변수의 완전매개효과(complete mediating)로 판단한다.

초등학생의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보면 먼저, 독립변수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종속변수인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beta=.5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며, 독립변수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매개변수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2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하여 학업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스트레스 대하여 유의한 영향력($\beta=-.38, p<.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으며, 이때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의 유의한 영향력($\beta=.41, p<.001$)을 갖고 1단계에서보다 3단계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더 작아졌으므로($\beta=.50 > \beta=.40$)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1982)의 Z공식에 의하면, Z값이 산출된 임계치인 ± 1.96 에 비교하여 $p<.05$ 수준에서 임계치보다 클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Z=4.59, p<.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초등학생의 부모의 성취 압력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R^2	F
1단계 (독립→종속)	학업 성취압력	학업스트레스	.50***	.25	149.51***
2단계 (독립→매개)	학업 성취압력	학업적 효능감	-.23***	.05	25.23***
3단계 (독립,매개→종속)	학업 성취압력 학업적 효능감	학업스트레스	$\frac{.41***}{-.38***}$.38	137.35***

*** $p<.001$

IV. 논의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스트레스의 관련성에 기초하여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나아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간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부적상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김경옥, 1992; 류연자, 1995; 최신아, 2010; 홍은자,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낮아진다(박지현, 2006; 전윤정, 2004; 최신아, 2010)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아진다(김미애, 2004; 노정림, 2006; 박수자, 1996)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으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있어 유의미한 상관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시기가 부모와 다른 성인들로부터 정서적 독립을 시작하는 발달기로서 초등학생에 비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신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련성이 적어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영아(2011)는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발달이 이행되는 시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성향이 증가하게 되어,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학업이나 각종 규율에 대한 압력과 강요가 자녀에게는 부모관련 스트레스로 주로 지각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부모가 중학생 자녀에게 갖는 학업의 대한 기대와 관심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라는 개인 내적인 동기와의 관련성보다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더욱 관련성이 높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학업적 자기효능감보다 부모로부터 받는 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성취압력이 양육행동의 하나로서, 학업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박서연, 정영숙, 2010; 최신아, 2010)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이 연구에서 정의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업성취를 목적으로 기대수준을 높게 책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활동을 기대하며 능력을 평가하거나 정의적 보상을 가함으로써 학습자가 지각한 압력(홍은자, 2001)'과 맥을 같이 하는 양육행동으로서의 학업성취압력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결과로 보인다. 그래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양육태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자녀의 성취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정의하는 연구(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와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학업성

취압력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비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이해함에 있어 개인 내적인 변인보다도 부모의 양육행동을 확인할 필요를 시사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조력하는 교육상담시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확인하는 동시에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부모교육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부모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관심을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보상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기보다 자녀가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거나 자녀의 학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하는 부모교육 및 상담이 궁극적으로 자녀의 학업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개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중학생의 경우 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설명력이 초등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설명하기 위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외의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를 연구한 몇몇 연구들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의사결정 자율성(모상현, 2010), 사회적 지지(노충래, 김설희, 2012; 박서연, 정영숙, 2010; 조아미, 2005), 자기통제(정철상, 2011) 등의 변인들을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논의한 바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포함하여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탐색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발달이 이행되는 전환기에서 겪게 되는 개인 내·외적 변화를 고려하여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함에 있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비교할 수 있는 연구 설계를 통하여 대상 간의 차이를 밝혀주는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 부모의 학업성취압력(독립변인)과 학업적 자기효능감(매개변인)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초등학생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학업성취압력이 높아질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직접효과를 학업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을 갖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하면서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불안의 수준을 조절하고(이상주, 2011),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자기효능감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수준을 낮추며(정소미, 2011), 시험불안을 감소시킨다(황상미, 정현희, 2012)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 조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학업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기여함으로써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박영아, 2011)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입증된 바 있어(신종호, 신태섭, 2006; 유미영, 홍혜영, 2010), 학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학업 수행에 있어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학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환경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여 학업스트레스 완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생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자신의 욕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여 적절한 정서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환경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부적응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중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빠른 속도로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김아영, 2002; Anderman & Midgley, 1997; Wigfield & Eccles, 2002)를 고려할 때, 초등학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유지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의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과 개인 내적요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 행동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 내적요인의 발달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과 같은 환경요인이 제공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의의를 지닌다. 또한 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경험적인 연구로 확인하고 상담현장에서 부모교육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업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개인 내적요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학업상담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이 연구는 학업스트레스의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변인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연구대상의 연령이나 성별 혹은 지역의 따른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스트레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과도한 학업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부적응적 행동의 심각성을 보고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국가들과의 연구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의 특징에 대한 범세계적인 비교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지만, 향후 연구를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 매개경로를 살펴본다면 학업스트레스의 대한 구체적인 개입방법을 제공하는데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민정 (2008). 학업스트레스를 위한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공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영철 (200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자아 및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옥 (1992).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생의 정의적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정 (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애 (2004). 초등학생의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적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2002). 학업동기 척도 표준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17(1), 157-184.
- 김아영 (2010). **학업동기[이론, 연구와 적용]**. 서울:학지사.
- 김아영, 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의철, 박영신 (2004).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 노정림 (2006).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시험불안과의 관계: 완벽주의와 학업적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충래, 김설희 (2012).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적이 심리적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과 우울불안에 대한 개인요인 및 사회적 지지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9, 39-68.
- 류연자 (1995). 어머니의 학업 성취압력과 아동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경숙 (2008).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자기통제 및 감정조절의 역할. **아동학회지**, 29(5), 285-298.
- 모상현 (2010). 청소년 학업스트레스 유발변인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자아존중감과 의사결정 자율성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7(2), 49-66.
- 박서연, 정영숙 (2010).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및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1), 17-32.

- 박수자 (1996).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습소외 및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박영아 (2011). 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2(3), 107-120.
- 박지현 (2006).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및 사회적지지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숙진 (2011). 부모의 성취압력, 청소년의 시험불안 및 정신적 안녕감 간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희주 (2003).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 일반고등학교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혜연 (2009). **청소년 진로선택과 부모의 영향**. 한국학술정보.
- 신중호, 신태섭 (2006).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지각된 교사기대, 가정환경 요인 간의 관계연구. **아동교육**, 38(2), 81-102.
- 신현균 (2002). 청소년의 학업부담감,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불능증 및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1(1), 171-187.
- 유미영, 홍혜영 (2010).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교육심리학회**, 24(4), 915-937.
- 윤명숙, 조혜정, 이현희 (2009).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및 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사용과 음주행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2), 131-156.
- 이상주 (2011).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사회불안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초등교육연구**, 24(2), 89-113.
- 임중석 (2000). 부모의 학업압력과 아동의 성취불안 및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윤정 (2004).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소미 (201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우울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효과 검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철상 (2011). 고3 청소년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아통제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8(9), 1-18.
- 조봉환 (2006). 초등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아동교육**, 15(3), 5-21.

- 조아미 (2005).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교육학 연구**, 43(3), 137-155.
- 최신아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 V: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신체·심리) 실태조사**. 서울:한국정책연구원.
- 현주, 차정은, 김태은 (2006). 학교급별 성취목표지향성이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2), 443-465.
- 홍은자 (2001). 어머니 성취압력과 학원·학습지 이용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매향 (2008). **학업상담**. 서울:학지사.
- 황상미, 정현희 (2012).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고등학생의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5), 1-20.
- Anderman, E. M., & Midgley, C. (1997). Changes i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perceived academic competence, and grades across the transition of middle-level school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2, 269-298.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2(84), 191-215.
- Bandura, A., & Schunk, D. H.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586-598.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Lazarus, R.,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Pintrich, P. R., & De Groot, E. V. (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33-40.
- Schunk, D. H. (1982). Effect of effort attributional feedback on children's perceived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548-556.
- Schunk, D. H. (1984).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behavior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 173-208.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Wigfield, A., & Eccles, J. S. (2002).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beliefs, expectancies for success, and achievement values from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In A. Wigfield & Eccles (Eds.), *Development of achievement motivation*(pp. 91-120).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논문접수 2013년 1월 31일 / 1차 심사 2013년 3월 5일 / 게재승인 2013년 3월 21일

* 선혜연: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초심상담자를 위한 집단상담”, “상담과 심리검사”, “청소년 진로선택과 부모의 영향”, “청소년 진로상담” 등이 있다.

* E-mail: hyseon@konyang.ac.kr

* 오정희: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전서부 교육지원청 학습클리닉센터 학습코치로 활동하였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학업동기, 학업상담, 부모상담이다.

* E-mail: likemel004@nate.com

Abstract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in Relations of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f Parents and Academic Stress: Focused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Seon, Hye-Yon*

Oh, Jung-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counter measures to cope with academic str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practical ways for school counseling as well implications for parental education. For this, the study examined impacts of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f parents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cademic stress, building on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f parents,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stress mainl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 And it further investigated if academic self-efficacy would mediat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f parents and academic stress. The study found as below as a result of analysis of data collected from 484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494 middle school students. Firstly,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was confirmed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f parents for bo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while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ship was confirmed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other hand, there was found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f parents and academic self-efficacy onl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condly,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f parents and academic self-efficacy exerted significant impact on academic stress for bo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irdly, the result of examining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correlation of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f parents and academic stress showed that academic self-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ly mediated in the relation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f parents and academic stress. Lastly discussion is focused on the meaning of these findings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rther studies.

Key words: Academic Stres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f Parents, Academic Self-efficacy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Konya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Konyang University